SK네트웍스 조직망 지렛대 삼아
국내공급 확대

SK네트웍스(대표 정만원, www.sknetworks.co.kr)가 지난 11월 10일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océ (www.oce.com)와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세 디지털 프린터에 대한 영업권이 SK네트웍스의 관리 하에 들어가더라도 기존의 파트너였던 이노다큐와 코리아프린테크의 영업권은 유지된다.

이번에 SK네트웍스와 손잡은 오세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초고속/대용량 디지털 프린트 및 문서관리 분야에서 시스템 및 전문적인 솔루션을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박성균 SK네트웍스 시스템사업본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오세 제품력과 SK네트웍스의 앞선 비즈니스 노하우가 결합하여 국내 중대형 프린팅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 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오세 측의 마크 반 미에로(Marc van Miero) 매니징 디렉터는 "SK네트웍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 동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한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 가장 먼저 출시하는 것도 한국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오세는 최상위 기종인 VarioStream 9000 시리즈와 양면을 동시 인쇄하는 세계 최고속 제품인 VarioPrint 6250 모델을 2007년 1월경,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SK네트웍스 시스템사업본부는 1990년대초 컴퓨터 유통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세계 유수의 IT제조사와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현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 기업용 프린터, 기타 정보화 기기 등을 취급하는 '종합 IT 인프라 유통사업자'로 성장했다. 2005년 회계기준 약 27억유로(한화 약 3조3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오세는 전세계 80여(30여 지사 포함, 종사자 약 2만5천명) 개 국가에서 초고속, 대용량 디지털 프린팅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연속용지 프린터(Black/White+Spot Color) 부문에서 유럽 54%, 북미 47% 등 전세계 5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